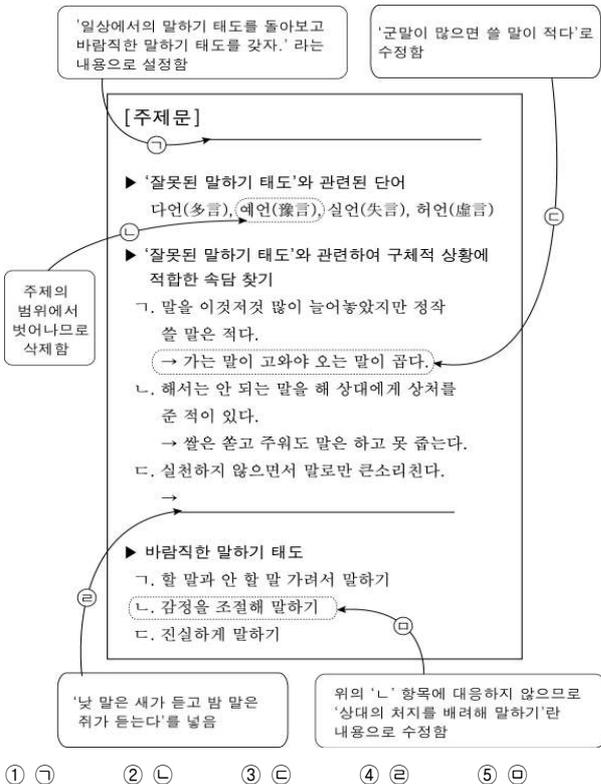


7. <보기>를 통해 연상한 내용을 주제로 설정하려고 한다.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
- ②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 ③ 자기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 ④ 결과에 집착하여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 ⑤ 현상만 보고 성급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8. <보기>는 '바람직한 말하기 태도'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내용들을 메모한 것이다. 이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9. '동생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콩트를 쓰기 위해 구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계	구상 내용
인물·상황 소개	⇨ 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일을 하시고, 동생과 나는 서로 의지하며 학교에 다닌다.
발단과 갈등 형성	⇨ ② 얼마 전부터 동생이 늦은 시간에 께죄죄한 모습으로 귀가한다. 타일러도 고쳐지지 않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새로운 사건 발생	⇨ ③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빈 병을 들고 고개를 숙인 채 주인에게 혼나고 있는 동생을 보게 된다.
갈등의 심화	⇨ ④ 그 순간 화가 난 나는 도와 달라는 듯한 동생의 눈빛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
반전	⇨ ⑤ 귀가한 어머니께 동생의 잘못을 말씀드리자 어머니께서는 요즘 너무 늦게 다닌다며 동생을 크게 나무라신다.
갈등의 해소	⇨ 며칠 후, 빈 병을 팔아 모은 돈으로 생일 선물을 사다며 동생이 자랑스럽게 공인형을 건넸고, 나의 오해가 풀린다.

10. <보기>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학업에 임하는 자세'에 관한 글쓰기 계획을 세워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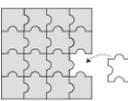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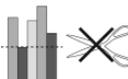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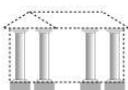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는 한 청년이 지혜로운 왕을 찾아가 인생의 성공 방법을 물었다. 그러자 왕은 "포도주를 가득 담은 술잔을 들고 성 밖을 돌아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사형에 처하겠다." 라고 명령하였다. 청년은 식은땀을 흘리면서 술잔을 든 채 성 밖을 돌았는데 포도주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왕은 "성을 돌 때 음악대 행렬을 보았느냐?" 라고 물었다. 청년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왕은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단계	내용 계획
자료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은 조언을 구하기 위해 지혜로운 왕을 찾아가았다. ○ 청년이 음악대 행렬을 못 본 것은 포도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고 술잔에 온 신경을 기울였기 때문이다.①
의미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남의 지혜를 구하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② ○ 한 곳에 정신을 집중하면 어려운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다.③
주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에 의지하려는 학생에게 창의적인 학습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한다.④ ○ 태도가 산만한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력 있는 학습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한다.⑤

11. '교육의 문제 상황'과 관련된 글을 쓰고자 한다. <보기>의 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시각 자료가 의미하는 바를 찾아 문제 해결의 방향에 유추적으로 적용할 것

문제 상황	시각 자료	문제 해결 방향
① 지식 교육만 강조		균형을 이룬 양팔 저울과 같이 지식 교육과 인성 교육은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② 가정·학교·사회의 이해와 협조 부족		톱니바퀴가 맞물려야 잘 돌아가듯이,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③ 지나친 입시 경쟁 구조와 불안		퍼즐이 마지막 조각을 맞추어야 완성되듯이, 복잡한 일도 끝까지 마무리하는 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
④ 획일화된 교육		다양한 색종이를 똑같은 길이로 자르는 것과 같은 획일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각자의 소질·개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⑤ 기초 학력 부진 학생의 증가		집을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는 기초가 중요하듯, 기초를 충실히 닦게 하여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

12. <보기>를 참조할 때, 어휘의 연상 과정이 일반화, 추상화의 방향으로 나아간 것을 고르면? [1점]

< 보 기 >

◦ 일반어 : 일반적이고 넓은 의미를 가진 단어
 ◦ 특수어 : 특수하고 좁은 의미를 가진 단어
 ◦ 추상어 : 생각과 결부된 관념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
 ◦ 구체어 : 감각할 수 있는 대상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

	[일반화]		[추상화]	
①	갈매기	→ 새	→ 자유	
②	예술	→ 문학	→ 소설	
③	집	→ 휴식	→ 어머니	
④	반지	→ 사랑	→ 행복	
⑤	나무	→ 대나무	→ 신념	

13. <보기>의 글을 고치기 위한 의견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생활이 바쁘게 돌아가면서 우리 전통 상차림의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 우리의 전통 음식은 곡물과 산채류, 해조류, 육류 등을 망라한 종합 건강식품이다. 전통 상차림이 ㉡ 물러나는 것과 더불어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사라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예전에는 온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아 오순도순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 익혀왔다. 어른보다 먼저 수저를 들어서는 안 되고 식사를 먼저 끝내도 안 된다. ㉣ 한편 반찬을 이것저것 집어 들고 털어 대면 복이 달아난다고 귀증을 듣는 등 밥상머리 교육에는 일상 생활에서 지켜야 할 품격과 예절이 담겨 있다.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 따로 자녀 따로 식구마다 빵조각과 우유 한 잔으로 끼니를 ㉤ 때우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머니의 정성이 깃든 밥상에 둘러앉아 가족 간의 정을 나누며, 예절도 배우는 전통을 되살려야겠다.

- ① ㉠은 글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서 삭제하여야 한다.
- ② ㉡은 문맥에 맞지 않으므로 '사라지는'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
- ③ ㉢의 목적어가 빠져 있으므로 '예절을'을 넣어야 한다.
- ④ ㉣은 연결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도리어'로 고치는 것이 좋다.
- ⑤ ㉤은 맞춤법에 맞지 않으므로 '때우는'으로 고쳐야 한다.

14.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할 때, 용언의 활용이 바르지 않은 것은? [1점]

< 보 기 >

'ㅂ'불규칙 용언의 활용에서 어간의 'ㅂ'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대부분 'ㅂ'을 '우'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쉽다'는 '쉬워, 쉬웠다'로 적고, '괴롭다'는 '괴로워, 괴로웠다'로 적는다. 다만, '곱다'와 같이 단음절 어간에 'ㅂ'가 포함된 경우, 어미 '-아'가 결합될 때는 '와'로 적는다.

- ① 맵다 : 매투, 매투다
- ② 춤다 : 추워, 추웠다
- ③ 뚱다 : 도와, 도왔다
- ④ 반갑다 : 반가와, 반가웠다
- ⑤ 무겁다 : 무거워, 무거웠다

【15-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

(나) 푸른 기와 이끼 낀 지붕 너머로
나죽히 ㉠ 흰구름은 피었다 지고
[A] 두리기둥 난간에 반만 숨은 색시의
초록 저고리 당홍치마 자락에
말 없는 슬픔이 쌓여 오느니—

십리라 푸른 강물은 휘돌아가는데
밝고 간 자취는 ㉡ 바람이 밀어 가고

방울 소리만 아련히
꿇질 듯 꿇질 듯 고운 외아리

발 돌우고 눈 들어 아득한 **연봉(連峰)** 을 바라보나
이미 여진 선비의 그림자는 없어……
자주 고름에 소리 없이 맺히는 이슬 방울

이제 임이 가시고 가을이 오면
원앙침(鴛鴦枕) 비인 자리 를 무엇으로 가리울꼬

피꼬리 노래하던 실버들 가지
꺾어서 ㉢ 채찍 삼고 가옵신 임아…… - 조지훈, 「별리(別離)」 -

(다) 새벽 서리 지는 달에 ㉣ **외기러기** 슬피 울 때
반가운 임의 소식 행여 울까 바랐더니
아득한 구름 밖에 빗소리뿐이로다
지루하다 이 이별이 언제 만나 다시 볼까
어와 내 일이야 나도 모를 일이로다
이리저리 그리면서 어이 그리 못 보시고
약수(弱水)* 삼천리 멀단 말은 이런 데를 이르도다

[B] 산머리 편월(片月)**되어 임의 님에 비취고저
석상의 오동(梧桐)***되어 임의 무릎 베이고저
공산(空山)의 새가 되어 **북창** 에 가 울고지고
옥상(屋上) 아침별에 제비 되어 날고지고

옥창(玉窓) 앵두꽃에 나비 되어 날고지고
㉤ **태산**이 평지 되도록 금강이 다 마르나
평생 슬픈 회포 어디에다가 견주리
- 작자 미상, 「춘면곡(春眠曲)」 -

* 약수(弱水) : 누구도 건너지 못한다는 전설상의 강.
** 편월(片月) : 조각달.
*** 오동(梧桐) : 오동나무로 만든 거문고로 추정됨.

1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에는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이 담겨 있다.
 - ② (가), (다)의 화자는 임이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있다.
 - ③ (나), (다)에는 임의 부재로 인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④ (가)~(다)의 화자는 지나온 삶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
 - ⑤ (가)~(다)에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16. (가)~(다)에 나타난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변에 약산 : 향토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 ② 연봉 : 화자의 순수한 사랑을 상징한다.
 - ③ 원앙침 비인 자리 :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드러낸다.
 - ④ 약수 : 화자와 임과의 단절감을 나타낸다.
 - ⑤ 북창 : 화자가 감정을 토로하고 싶은 곳이다.

17. ㉠~㉤ 중 <보기>의 ‘사물’에 해당하는 것은? [1점]
- < 보 기 > —
- 감정이입이란, 화자 자신의 감정을 **사물**에 옮겨 그 사물도 화자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는 듯이 표현하는 방법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8. (가)의 표현상의 특징 및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종결 어미 ‘-우리다’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살렸다.
 - ② 각 연을 3행으로 배열하여 형태적 안정감을 얻었다.
 - ③ 반어법을 사용하여 임에 대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냈다.
 - ④ 유사한 시구를 처음과 끝에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했다.
 - ⑤ 청각적 이미지로 시적 화자의 정서를 생동감 있게 드러냈다.

19. (나)의 [A]를 감상하면서 <보기>를 연상했다고 했을 때, 그 연상의 고리를 적절하게 추리한 것은? [1점]

— < 보 기 > —

열 여섯 아리따운 아가씨
 남 부끄러워 말 못하고 헤어졌고야.
 돌아와 중문을 닫고서는
 배꽃 사이 달을 보며 눈물 흘리네.
 - 임제, 「무어별(無語別)」 -

- ① 시 속 인물에게서 애상적인 느낌을 받게 된다는 점
- ②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인물의 심정을 노래한 점
- ③ 이별의 정한이 다양한 대상을 통해 비유된 점
- ④ 재회에 대한 의지가 역설적으로 드러난 점
- 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 점

20. 수업 시간 중에 ‘창의적으로 표현하기’에 관한 과제가 제시되었다. 선생님이 밝힌 조건에 따라 과제를 바르게 수행한 것은? [3점]

선생님 : 자, (다) 작품을 한번 봅시다. (다) 작품의 갈래는 가사인데, 4음보로 이루어진 기본 율격이 시조와 같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의 [B] 부분에 나타나 있듯이 다른 사물로 변신하여 임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발상을 활용하여 시조를 창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시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겠죠? 그리고 화자의 태도와 발상 역시 원작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조로 바꾸어 보세요.

- ① 춘삼월 동풍 되어 임의 품을 파고들까
추구월 실슬 되어 임의 침상 찾아들까
애닦다 떠나간 임을 어느 때에 만나볼꼬
- ② 맑은 가자 울고 임은 잡고 울고
석양은 재를 넣고 갈 길은 천리로다
임이야 날 잡지 말고 지는 해를 잡아라
- ③ 긴긴 가을 밤에 임 생각이 더욱 깊다
떨어지는 빗소리에 애간장 다 썩노라
아마도 기구한 인생 나뿐인가 하노라
- ④ 복사꽃 흩날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남
가을 바람 한숨 되고 겨울 눈 원망 되네
가슴 속 맏힌 원한 못 세월 눈 못 감네
- ⑤ 날 향한 임의 사랑 봄비 되어 내릴 때
임 향한 이 내 순정 풀잎 되어 춤추리
세월도 막지 못하리 철석 같은 우리 언약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 혼자 노는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들은 온종일 인터넷, 휴대 전화, 텔레비전 등을 이용해 혼자 논다. ‘아햏햏’이라는 말을 유행시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사이트에는 과자의 작은 알갱이를 10개씩 분리하며 노는 네티즌들의 사진이 올라와 있다. 그뿐 아니라 ‘카펫에 달린 털 세기’, ‘밥알 세기’, ‘옥수수 수염 세기’, ‘다리 털 세기’ 같은 행위도 하나의 놀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얼핏 보아도 이런 행동은 @무의미하기 짝이 없지 않은가? 그런데 이런 행동들은 젊은 세대들의 호응을 얻으며 어느덧 문화 현상의 하나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혼자 놀기 문화는 인터넷과 이동 통신 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탄생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등의 수단이 없었다면 이러한 현상이 하나의 문화로 등장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혼자 놀기의 대가(?)들은 자기들의 놀이 행위를 디지털 카메라에 담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방에서 그 사진들을 클릭하고 때로는 거기에 답글을 달며 놀게 된다. 휴대 전화 역시 혼자 노는 문화를 가능하게 해 주는 도구이다. 원래는 다른 사람과의 발 빠른 의사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휴대 전화는 이제 그러한 본래의 목적을 넘어서 게임, 음악, 동영상 등의 문화를 수용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혼자 놀기 문화는 기술 문명이라는 배경이 있었기에 발달할 수 있었던 문화인 셈이다.

젊은 세대들의 혼자 놀기 문화는 전통적 의미의 외로움이나 소외와는 다른 맥락을 지닌다. 이 현상에는 ‘현대 사회에서의 인간 소외’라는 일반적인 공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젊은 세대들은 고독이나 소외를 극복하거나 견뎌 내야 하는 진지한 개념보다는 오히려 즐길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나홀로족(族)’들의 문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결국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려는 갈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혼자 놀기는 가상의 집단에게 자신의 독특한 취향을 내보이려는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이들은 ㉢‘혼자 놀기’를 통해 ‘함께 노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혼자 놀기 문화를 보는 시각에는 일말의 씁쓸함이 담길 수밖에 없다. 컴퓨터나 게임기가 없어 집에서 혼자 놀기에는 너무나 심심했던 시절, 골목으로 뛰쳐나온 아이들은 몸으로 부딪치고 머리를 맞대며 친구가 되었다. 온 동네를 함께 휘젓고 다니며 쌓아 온 그런 친밀감은 ‘가상’이 아니라 ‘실제’였으며 무엇보다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휴대 전화 같은 정보 통신 기술에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요즘 청소년들의 만남은, 몸과 몸이 만나다기보다 정보와 정보가 만나는 일종의 디지털 게임처럼 보이기도 한다.

물론 혼자 노는 것이 좋다는 사람들을 막무가내로 함께 놀자고 끌어당길 수는 없다. 그들 나름의 취향과 사고방식은 인정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혼자 놀기’의 진수’를 깨달은 사람이라도 컴퓨터나 휴대 전화의 전원을 잠시 꺼 보는 것은 ㉤어떨까. 자기 방보다 좀 더 넓은 공간으로 나설 때, 그곳에서 ‘함께 놀기의 진수’를 보여줄 누군가를 실제로 만나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니 말이다.

21. 위 글에 나타난 '혼자 노는' 사람들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점]

- ① 컴퓨터나 휴대 전화 등의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② 남들이 보기에 무의미한 행동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 ③ 특정 사이트를 중심으로 자신들만의 세력을 넓혀 간다.
- ④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다.
- ⑤ 자신의 독특한 취향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기도 한다.

22. 인터넷에서 <보기>를 접하고 댓글을 단다고 할 때, [A]와 유사한 태도가 드러나는 것은?



- ①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주인공이 된다는 건 정말 영광이에요.”
- ② “현대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 ③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 멋있군요. 아무튼 힘내세요!”
- ④ “자신의 삶에 충실한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의 태도라는 걸 알겠어요.”
- ⑤ “우리의 삶은 주위 사람들과 어우러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23. 위 글의 ㉠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자 할 때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사회적인 비난을 회피하려는 임시방편일 뿐이지 않습니까?
- ② 혼자서 노는 행위의 참다운 묘미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까?
- ③ 실제 공간에서 만남을 이루어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④ 인터넷상에서의 만남이란 일회성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⑤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24. <보기>는 문장 부호에 관한 심화 학습을 하기 위해 정리한 자료이다. ㉠~㉣에 적용하여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보 기 >

◦ **물음표(?)**

- ㉠ 형식은 물음을 나타내지만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강한 감정을 나타낼 때에 쓴다.
- ㉡ 특정한 내용에 대하여 적절한 말을 쓰기 어려운 경우에 소괄호 안에 쓴다.
- ㉢ 의문의 정도가 약한 의문문에서는 물음표 대신 온점(.)을 쓸 수도 있다.

◦ **작은따옴표(' ')**

- ㉣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에 쓴다.
- ㉤ 중요한 부분이나 강조하고 싶은 어휘를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쓰기도 한다.

- ① ㉠ : 답변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의 규정대로 물음표를 사용하였다.
- ② ㉡ : ㉡의 규정을 적용하여 '대가'의 쓰임이 정확한 것은 아님을 드러내었다.
- ③ ㉢ : 논지 전개와 관련하여 중요한 어휘이기 때문에 ㉢의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 ④ ㉣ : 글쓰기가 추측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이므로 ㉣의 경우를 적용하였다.
- ⑤ ㉤ : 의문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에 따라 물음표 대신 '온점'을 사용하였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시대 초상화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조선시대에 그려졌던 초상화 제작의 원칙은 모델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데에 있었다. '일호불사 편시타인(一毫弗似 便是他人 : 터럭 하나라도 같지 않으면 곧 다른 사람)'이라는 정신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것이다. 퇴계 이황 같은 분은 끝까지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조금이라도 자신을 닮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초상화가 반드시 얼굴 모양을 정확히 닮게 그리는 데에만 치중하지는 않았다. 왕의 초상화인 어진(御眞)을 그리는 데도 얼굴의 겉모습은 칠분모(七分模 : 70%만 닮음)면 족하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었지만, 그보다도 대상 인물이 지닌 정신과 성격을 표현해 내는 것을 더 높이 샀다. 이것이 바로 조선 조 초상화의 '전신사조(傳神寫照)' 정신이다.

‘전신사조’는 중국 육조 시대의 화가 고개지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사조’란 작가가 바라보고 관찰한 대상의 형상을 묘사하는 것을 뜻하고, ‘전신’이란 그 대상의 내부에 들어 있는 정신과 성격을 그려낸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대상의 겉모습을 묘사하되 그 속에 숨어 있는 정신까지를 표현해 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정신’은 형태가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형태가 있는 겉모습을 통해야만 드러낼 수 있다. 그렇기에 ㉠ 전신 없는 사조 없으며 사조 없는 전신도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신사조 정신은 초상화 제작 과정에서 치밀한 관찰로 구현된다.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는 먼저 대상이 되는 인물을 치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이 때 대상이 일반 사대부이거나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일이 비교적 쉬웠다. 예를 들면 숙종 때 윤승의 초상화를 그린 변량은 3개월 동안 대상의 특징과 동작 등을 자세히 관찰한 결과 뛰어난 초상화를 그릴 수 있었다.

반면 관찰이 미진하면 초상화가 잘 나오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공신을 그린 초상화의 경우 대개 그 수준이 떨어지는 까닭은 왕명에 의해 관복을 차려 입은 화원(畫員)이 역시 관복을 입은 채 엄숙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대상의 모습을 보고 그려야 했기에 충분한 관찰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초상화의 대상이 왕일 경우에는 관찰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이 더 많았다. 왕의 초상화는 ‘어진도사도감’이라는 관청에서 화원이 그렸는데, 그 종류에는 ㉡ 도사(圖寫), ㉢ 추사(追寫), ㉣ 모사(模寫) 세 가지가 있었다. 도사란 살아 있는 왕의 모습을 보고 그리는 것이고, 추사란 왕이 죽은 뒤 추정에 의해 그리는 것이며, 모사란 그려진 초상이 훼손된 경우 원본을 바탕으로 새로 그려낸 것이다. 도사의 경우에는 왕의 모습을 직접 보고 그려야 했지만, 워낙 지엄한 존재라서 그것이 수월하지 않았다. 그래서 왕을 닮은 사람을 수없이 그려 미리 연습을 한 후에 그리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관찰을 중시하여 대상의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과 특징까지 드러내고자 하였다. 얼굴에 있는 작은 주름 하나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그리면서 대상의 진면목을 ㉤ 보여 주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단순한 그림에 그치지 않고 대상 인물과 동일시되는 사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2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 ① 조선시대 공신들의 초상화는 화원이 직접 관찰하지 않고 그렸다.
- ② 조선시대 초상화의 특징은 대상을 추상적으로 그리는 데 있었다.
- ③ ‘전신사조’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초상화 제작의 정신이다.
- ④ 초상화의 대상이 일반 사대부일 경우에는 그리기에 어려움이 따랐다.
- ⑤ 조선시대 때 왕의 초상화는 어진도사도감이라는 관청에서 제작을 담당했다.

26. ㉠의 관점에 주목하여 <보기>의 초상화를 감상한 것은?



- ①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니 한없이 부드러운 붓질을 반복하여 노인 피부의 메마른 질감이 잘 드러났음을 느꼈어.
- ② 피부를 뚫고 나온 듯한 수염은 내려오면서 이리저리 꺾이는가 하면, 눈동자도 특이한 모양으로 그려져 있군.
- ③ 검정색 복건이 삼각형으로 정돈되어 위와 좌우 세 방향으로 얼굴이 돋보이도록 딱 받쳐주어서 전체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주는군.
- ④ 옷 전체의 윤곽선과 주름의 선을 보면, 획 하나하나가 살아 있는 것 같고, 복건의 꺾인 선은 마치 쇠붙이를 접은 듯이 굳센 느낌을 받았어.
- ⑤ 하얗게 센 눈썹과 굵어졌다 가늘어졌다 하는 긴 수염, 그리고 눈빛이 살아 있는 듯한 묘사에서 학갈이 고고하면서도 단정한 선비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어.

27. ㉡과 관련하여 <보기>를 참고하였을 때 ‘주다’가 보조용언이 아닌 것은? [1점]

< 보 기 >

용언 중에는 혼자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용언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여 주는 것이 있다. 이를 보조용언이라고 한다.

- ① 생각했던 것보다 선물을 많이 주었다.
- ② 형의 고장 난 자전거를 수리해 주었다.
- ③ 상대가 불쌍해서 한 번 용서해 주었다.
- ④ 몸이 아픈 동생에게 밥을 먹여 주었다.
- ⑤ 바쁘다고 해서 편지를 대신 부쳐 주었다.

28. ㉢, ㉣에 대한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왕을 오래 관찰한 결과를 반영한 그림이다.
- ② ㉣는 왕이 정사로 바뀔 때 편법으로 그려진 그림이다.
- ③ ㉣는 아무런 근거 자료 없이 그려진 상상적 그림이다.
- ④ ㉢는 ㉣보다 왕의 실제 모습을 잘 드러냈을 것이다.
- ⑤ ㉣와 달리 ㉢는 전문 화원에 의해서 그려졌을 것이다.

【29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어느 날 저녁 산중의 왕인 범이 자기 몸에 붙어 사는 귀신들을 불러 어디에 가면 먹이를 취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귀신들은 고기 중에서 으뜸은 '선비[儒]' 고기라고 추천한다. 이윽고 범은 저녁거리를 찾아 마을로 향했다.

정(鄭)나라 어느 고을에 벼슬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학자가 살았으니 북곽 선생(北郭先生)이었다. 그는 나이 40에 손수 교정(校正)해 낸 책이 만 권이었고, 또 육경(六經)의 뜻을 부연해서 다시 저술한 책이 일만 오천 권이었다. 천자(天子)가 그의 행의(行義)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諸侯)가 그의 명망을 존경하고 있었다.

그 고장 동쪽에는 동리자(東里子)라는 미모의 과부가 있었다. 천자가 그 절개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현숙함을 사모하여, 그 마을의 돌레를 봉해서 '동리과부지려(東里寡婦之閭)'라고 정표(旌表)해 주기도 했다. 이처럼 동리자가 수절을 잘하는 부인이라 했는데, 실은 슬하의 다섯 아들이 저마다 성(姓)을 달리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다섯 아들이 서로 지껄이기를,
 “강 건너 마을에서 닭이 울고 강 저편 하늘에 셋별이 반짝이는데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어찌 그리 북곽 선생의 목청을 닮았을까?”

하고 다섯 놈이 차례로 문틈으로 들여다보았다.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했삼는데, 오늘 밤은 선생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하옵니다.”

하고 간청하니, 북곽 선생은 웃기를 바로잡고 점잖게 앉아서 『시전(詩傳)』을 외었다.

원앙새는 병풍에 그려 있고, / 반딧불이 흐르는데 잠 못 이루어 저기 저 가마솔과 세 발 솔은 /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다. 흥야(興也)라.

다섯 아들이 서로 소근대기를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과부의 문을 함부로 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북곽 선생과 같은 점잖은 어른이 과부의 방에 들어올 리가 있겠나. 우리 고을의 성문이 무너져서 여우 구멍이 생겼다는데, 여우란 놈이 천 년을 묵으면 사람 모양으로 둔갑할 수 있다더라. 저건 틀림없이 그 여우란 놈이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것이다.”

하고 함께 의논했다.
 “들으니 여우의 갓을 얻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대낮에 그림자를 감출 수 있고,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아양을 잘 부려서 남의 귀여움을 받을 수 있다더라. 우리 저 놈의 여우를 때려잡아서 나눠 갖도록 하자.”

다섯 아들이 방을 둘러싸고 우루루 쳐들어 갔다. 북곽 선생이 크게 당황하여 도망쳤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서, 모가지들 두 다리 사이로 박고 귀신처럼 춤추고 깎질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닫다가, 그만 들간의 구멍이 속에 빠져 버렸다. 그 구멍이에는 종이 가득 차 있었다. ㉠간신히 기어올라 머리를 들고 바라보니 뜻밖에 범이 길목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범은 북곽 선생을 보고 이맛살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싸쥐고 머리를 돌렸다.

“에이, 선비한테서 구린내가 나는구나.”

북곽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고 범 앞으로 기어가서 세 번 절하고 꿇어앉아 우러러 아뢰었다.
 “범님의 덕은 지극하시지요. 대인(大人)은 범님의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帝王)은 그 걸음을 배우며, 자식된 자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며, 그 거룩하신 이름은 신령스런 용[神龍]의 짝이 되는지라, 바람과 구름을 지으실 때, 이 하토(下土)의 천신(賤臣)은 감히 바람 밑에 있사옵니다.”

범은 북곽 선생을 여지없이 꾸짖었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 듣건대 유(儒)는 유(謔)*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에 천하의 악명(惡名)을 죄다 나에게 덮어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자 면전(面前)에서 아침을 떠는구나. 누가 곧이듣겠느냐. 천하의 원리는 하나뿐이다. 너희의 떠드는 천 가지 소리, 만 가지 소리는 오륜(五倫)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말은 내내 사강(四綱)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도회지에 코 베이고, 발꿈치 잘리고, 얼굴에다 먹물 들고 다니는 것들은 다 오륜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아니냐. 포승줄과 먹살, 도끼, 톱 같은 형구(刑具)를 매일 쓰기에 바빠 겨를이 나지 않는데도 죄악을 중시시키지 못하는구나. 범의 세계에서는 원래 그런 형벌이 없으니, 이로 보면 범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보다 어질지 않느냐.” (중략)

이에 북곽 선생은 진실로 황송하고 두려워 손을 마주잡고 머리를 조아리다가 보니 동방이 밝았고 범은 이미 가버리고 없었다. 이때 한 농부가 아침에 김을 매러 나왔다가

“선생님은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들에 나오셔서 절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이에 북곽 선생은

“옛 성현의 말씀에 ‘하늘이 비록 높다 해도 머리를 아니 굽힐 수 없고, 땅이 비록 두텁다 해도 조심스럽게 밟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느니라.”

하고 말하였다.
 - 박지원, 「호철(虎叱)」 -

* 유(謔) : 아첨하다, 알랑거리며 말하다.

[A]

29. 다음은 위 글의 인물 분석을 통해 주제를 탐구한 것이다.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점]

	북곽 선생	동리자
세상의 평판	높은 학식을 지녀 크게 명성을 얻은 유학자	열녀로 표창 받을 만큼 절개가 높은 미모의 과부
실제의 모습	과부의 집에 숨어들어 은근한 말로 유혹함	성(姓)이 다른 다섯 아들을 두고 있음
	([가]) 인물형	([나]) 인물형

당대 양반 계층의 이중적인 태도를 풍자함

- | | | | |
|-------|-----|-------|-----|
| [가] | [나] | [가] | [나] |
| ① 이타적 | 이기적 | ② 모범적 | 위선적 |
| ③ 윤리적 | 타산적 | ④ 모범적 | 타산적 |
| ⑤ 이타적 | 위선적 | | |

3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섬세하고 치밀한 묘사를 통해 비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② 주인공의 내적 갈등을 통해 시대의 모순을 그리고 있다.
- ③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해학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환상적인 장면을 제시하여 탈속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인물의 심리 변화 양상을 제시하여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31. [A]에서 '다섯 아들들'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머니 방에 몰래 들어온 복괵 선생에 대해 실망하고 있군.
- ② 교활한 여우가 언제 자신들을 해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군.
- ③ 복괵 선생의 명성 때문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군.
- ④ 사람으로 둔갑한 여우의 변신술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고 있군.
- ⑤ 둔갑한 여우의 정체를 모르는 어머니로 인해 안타까워하고 있군.

32. [B]에서 '복괵 선생'과 '범'이 취한 말하기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몸이 아픈 학생과 청소 당번을 대신 해 준 친구의 대화)
갑 : 미안해서 어쩌지? 내가 했어야 할 일인데…….
을 : 그런 소리 하지 마. 네 몸이나 잘 돌봐.
- ② (축제 때 사회자를 몰색하던 동아리 회장과 친구의 대화)
갑 : 이번 일은 네가 맡아 줘. 너만 한 책임자가 없어.
을 : 역시 너는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그래 내가 할게.
- ③ (수행평가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학생과 친구의 대화)
갑 :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 한 번만 더 나를 도와 줘.
을 : 내 코가 석 자야. 이제부터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 ④ (생일 선물을 준비한 학생과 생일을 맞이한 친구의 대화)
갑 : 생일 축하해. 이걸 작지만 내 정성이니 받아줘.
을 : 고맙게 받을게.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무리하지 마.
- ⑤ (실수한 후배와 그 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선배의 대화)
갑 : 누나, 미안해. 마음이 넓고 천사 같은 누나가 용서해 줘.
을 : 그렇게 아무로 실수를 얼버무리고 반성하지 않으니 문제야.

33. ㉠의 상황에서 '복괵 선생'이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산 넘어 산이로군.
- ② 날개 부러진 매로군.
- ③ 제 눈에 안경이로군.
- ④ 다 된 밥에 재 뿌리기로군.
- ⑤ 아랫돌 빼어 윗돌 괴기로군.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룰 때 발전이 촉진된다. 속담에 '절약만 하고 쓸 줄 모르면 천척도 배반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적절하게 쓰일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는 의미로, 생산과 소비의 상호 작용을 영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가 없는 생산이 지속되면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되어 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는 '유효수요(effective demand)'가 있을 때 발생하는데, 이때 유효수요란 돈을 주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를 말한다. 유효수요는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유효수요의 중요성은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J. M. Keynes)가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유효수요 이론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당시 현실을 무시하고 학문적 세계에만 빠져 있던 ㉠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실업이나 공황은 일시적 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시장 경제의 자동 조절 작용에 의해 경기가 곧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J. B. Say)의 법칙에 입각하여, 생산된 상품이 판매되지 않아서 (㉡)하고 그로 인해 (㉢) 하는 사태는 이론상 벌어질 수 없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이러한 예측은 빗나갔고 그들은 공황을 해결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다. 게다가 그들은 아담 스미스(A. Smith)가 강조한 '완전한 자유 경쟁'과 '자유방임주의'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 밝았던 ㉣ 케인스는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부정하고 유효수요 이론이라는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냈다. 이 이론의 핵심은 기업의 생산량은 투자와 소비를 합한 유효수요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었다. 케인스는 1930년대의 대공황도 결국은 유효수요의 감소로 생겨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술 발전으로 기업의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그에 상응할 만큼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늘어나지 않았고, 그 결과 생산은 크게 늘었지만 이를 구매할 만큼 소득은 증가하지 못하여 과잉 생산, 과소 소비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케인스는 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효수요의 창출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적자 재정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투자할 것과 은행 예금이 기업의 투자 자금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도록 이자율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신규 투자를 활성화시켜 실업자를 구제하면 유효수요가 창출돼 가계 소비가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생산 활동이 촉진되면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다만 케인스는 일시적인 유효수요의 창출로는 경기 회복을 보장할 수 없고, 경기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른바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을 강조했다. 케인스는 필요한 물건을 형편에 맞게 구입하는 건전한 소비는 그 자체가 유효수요이고 한 나라의 경제력을 창출하는 원동력이므로 소비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치와 낭비는 자제되어야 하지만 근검 절약해야 한다는 도덕률에 빠져 필요한 소비마저 억제하는 지나친 검소는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비의 원리를 정확히 운영하는 것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핵심임을 직시한 케인스의 주장은 당시 공황을 해결하는 최적의 해법이 되었다.

34.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설을 제시한 다음 구체적 자료로 이를 검증하고 있다.
- ② 사례들의 공통점을 추출하여 보편적 원리를 도출하고 있다.
- ③ 대립되는 두 주장을 제시한 다음 절충하여 마무리하고 있다.
- ④ 문제 현상을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다른 이론과의 대비를 통해 한 이론의 특징을 부각시키고 있다.

35. <보기>가 경기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래프라 할 때, 위 글을 참조하여 <보기>의 ㉠ 부분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기라 할 수 있겠어.
- ② 생산과 소비의 격차가 커지면서 경기 불안 요소가 해소되는 시기라 할 수 있겠지.
- ③ 생산과 소비가 일정한 격차를 유지하면서 경기가 안정기에 접어든 시기라 할 수 있겠군.
- ④ 생산과 소비가 급격히 감소되면서 경제가 공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 할 수 있겠어.
- ⑤ 생산이 소비를 뒷받침하지 못해 과소 생산, 과잉 소비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시기라 할 수 있겠지.

36.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둘 다 소득의 공정한 배분을 중시했다.
- ② ㉠은 기존 관점을 따랐고, ㉡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 ③ ㉠과 달리 ㉡은 시장 경제의 자동 조절 작용을 강조했다.
- ④ ㉠은 수요가 공급을, ㉡은 공급이 수요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 ⑤ ㉠은 생산 증대를, ㉡은 소비 증대를 공황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37. 문맥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 ㉠ | ㉡ |
|----------|--------|
| ① 가격이 하락 | 실업이 발생 |
| ② 소비가 증가 | 가격이 상승 |
| ③ 기업이 도산 | 실업이 발생 |
| ④ 소비가 증가 | 공황이 발생 |
| ⑤ 기업이 도산 | 가격이 상승 |

38. '절약의 역설'을 강조하는 홍보물을 만들려고 한다. 작성한 문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소비의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세요.
지금은 무엇보다 절약이 필요한 때입니다.
- ② 지나친 검소는 미덕이 아닙니다.
건전한 소비는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 ③ 사치와 낭비는 이제 그만!
무분별한 소비는 가계의 파탄을 초래하는 지름길입니다.
- ④ 지갑을 잠시 주머니에 넣어 두세요.
내가 소비하는 물건 하나가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됩니다.
- ⑤ 소비는 선택입니다.
최고의 상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연에서 색을 얻는 천연 염색 기술이 시작된 시기는 꽤 옛날로 올라간다. 우리나라에서는 철기 시대부터 목기, 옹기류에 염색을 하기 시작했다. 삼국 시대에는 염직 공예가 발달했고, 왕, 대신, 백관의 서열에 따라 그들이 입는 공복의 색깔을 달리하여 자주색, 노란색, 푸른색으로 염색된 옷을 입기도 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삼국의 우수한 염색 기술을 바탕으로 관영 공장 및 사설 공장에서 염직물을 대량으로 ㉠ 생산했다. 고려의 염색 기술은 조선조에게까지 내려와 청염장이나 홍염장 같은 색상별 전문 장인이 출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나) ㉠ 일반적으로 천연 염색에서 주로 사용하는 염료는 채취원에 따라 동물 염료, 광물 염료, 식물 염료로 나뉜다. 선조들은 이 중에서 자연 곳곳에서 풍부하게 재료를 얻을 수 있는 식물 염료를 ㉡ 애용했다. 19세기 생활사를 정리해 엮은 『규합총서(閩閩叢書)』에는 천연 식물 염료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에 따르면 홍화, 쪽두서니로 붉은색을, 쪽풀, 닭의장풀로 푸른색을, 땃잎이나 버드나무 가지로 검은색을, 황련, 황백, 황토로 노란색을 만들었다고 한다.

(다) 천연 염료로 염색하는 기술을 잘 보여주는 것은 쪽빛 염색이다. 쪽풀을 3월경 심었다가 8월 중순 안개 자욱한 꼭두새벽에 베어 냇물과 함께 큰 항아리에 넣고 일주일을 삭힌다. 삭힌 쪽물에서 색소를 ㉠추출하는 역할은 조개 껍데기를 구워 얻은 석회(石灰)의 몫이다. 체로 불순물을 걸러낸 삭힌 쪽물(액)에 석회를 정확한 비율로 뿌리며 고무대로 젓는다. 이때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들여 고무대질을 하면 색이 잘 나왔음을 알리는 물거품이 생긴다. 이를 뒤 석회가 색소를 머금고 가라앉으면 아래쪽에는 푸른 물, 위쪽에는 맑은 물의 층이 나뉜다. 이를 푸른 빛 물과 쪽대를 태워 만든 잿물을 적당하게 혼합하여 두 달 가량 보관한다. 이렇게 하면 죽 상태의 쪽물 염료가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에 양조 식초를 알맞게 배합한 후 옷감을 열 번 정도 담근다. 그 다음 천을 냇물에 넣고 빨아 불순물을 없애서 말리면 쪽빛 옷감이 탄생한다.

(라) 천연 염색에서 쪽빛과 같은 원색이 아닌 중간색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천연 염색에서 복합 염색을 하여 얻은 중간색을 간색(間色)이라고 한다. 간색은 반드시 백→청→황→홍→흑의 염색 순서를 따랐다. 예를 들어 화학 염색은 붉은색과 푸른색을 ㉡혼합하면 보라색을 만들 수 있지만, 천연 염색은 그렇지 않다. 천연 염색을 들인 후 홍화물을 들여야 제대로 된 보라색을 얻을 수가 있다.

(마) 보통 화학 염색은 한 번에 원하는 색을 얻어낸다. 하지만 천연 염색은 햇빛, 바람, 손맛 등 자연과 인간의 다양한 요소를 합쳐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순도가 높고 고운 색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천연 염색은 화학 염색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그윽한 청아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또한 천연 염색은 화학 염색처럼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공해 및 폐수 문제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 ④ 지적 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활동의 결과로 얻은 무형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말한다. 저작, 특허,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 ⑤ 설화의 양식에는 시조(始祖)와 관련된 이야기로서의 신화, 지역에 얽혀있는 신비한 이야기인 전설, 향간에 떠도는 흥미로운 이야기인 민담 등이 있다.

41. <보기>는 (다)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ㄱ~ㄴ을 작업 순서에 따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점]



- ① ㄱ→ㄴ→ㄷ→ㄹ
- ② ㄱ→ㄷ→ㄹ→ㄴ
- ③ ㄷ→ㄴ→ㄱ→ㄹ
- ④ ㄷ→ㄹ→ㄴ→ㄱ
- ⑤ ㄷ→ㄱ→ㄴ→ㄹ

39. (가)~(마)의 핵심 요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천연 염색 기술의 발달 과정
- ② (나) : 천연 염료의 종류와 채취 시기
- ③ (다) : 천연 염색 기술로서의 쪽빛 염색 과정
- ④ (라) : 간색을 얻는 방법
- ⑤ (마) : 천연 염색이 지닌 장점

40. ㉠과 설명 방식이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한국 영화의 인기 요인은 주제 의식, 제작 기법, 배우들의 연기가 모두 뛰어나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 ② 줄다리기와 같은 단체 경기는 춤으로 치면 군무(群舞)와 마찬가지로 전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 ③ 백두산 호랑이는 육중한 체구, 둥그런 귀가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붉은 빛이 도는 털이 나 있고 가슴, 허리 등의 털은 하얀색이다.

42. ㉠~㉢를 고유어로 바꾸어 썼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생산했다 → 만들어냈다
- ② ㉡ 애용했다 → 즐겨 썼다
- ③ ㉢ 추출하는 → 이끌어내는
- ④ ㉣ 혼합하면 → 섞으면
- ⑤ ㉤ 유발하지 → 일으키지

【43-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동해 바다에서 막 잡아 온 고등어요, 고등어. 이 고등어 못 먹어 본 사람 저승에 가서도 눈을 못 감을 거요. 암, 못 감지.” 쇠꼬챙이로 고등어의 아가리를 딱 짝 올려서 휘휘 내들었다. 그때마다 통통하게 살이 밴 고등어의 **눈갈이** 희번덕거렸다. 기수의 말따따나 그것은 언뜻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알량한 하등 생선 가지고 **너스레** 깨나 떤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허풍은 으레 번두리 시장 바닥에 있게 마련인 시끄러운 풍물의 하나쯤으로 여기는지 아무도 잘 눈여겨 보지도 않았다.

“얼마예요, 한 마리?”

“아따, 값부터 물어 보시네. 이리 와 보세요. 나 아주머니 말만 잘 하시면 거저라도 드리겠소.”

“그 양반 말 한번 푸짐하구만.”

“우리 선조가 변호사였는갑소. 말이야 청산유수지요. 무식해서 탈이지.”

아주머니라고 불린 여자는 마지못해 기수의 좌판 가까이 쭈뼛쭈뼛 다가왔다.

“보쇼, 아주머니.”

하면서, 기수는 쇠꼬챙이로 고등어의 배때기를 타닥타닥 두들기기도 하고, 아가미를 찢혀 보이기도 하였다. 이때 손님의 팔꿈치 사이로 상고머리 고개 하나가 쑥 들어왔다.

“아버지, 아버지,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응, 너 왔냐? 머어, 어머니가 어쩐다고?”

“엄마가 이상해요. 막 입에 거품을 품고…….”

“똥이라고?”

기수는 하던 흥정을 멈추고 이웃 사람에게 가게를 부탁하고는 아들을 따라 허둥지둥 달려가기 시작했다. 이 사람에게 부딪치고 저 사람에게 부딪치고, 더러는 사람을 떠다말다시피 하면서 시장에서 한참을 가야 하는 산동네로 허위허위 달려갔다. 달려가면서도 기수는 자꾸만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는갑다 싶은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자꾸만 눈앞을 가로막았다. 그러면서 지금 죽어서는 안 되는데, 조금만이라도 더 살아 주어야 하는데, 복도 없는 년 왜 벌써 가니, 속으로 울었다. 아내는 아침에도 그렇저런 목소리로 아무래도 시원치 않다고 우는 소리를 했다. 기수는 그런 아내의 손을 잡아 주면서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고, 의사 선생님도 병이란 환자의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지 않더냐고, 그러니 지금 받아다 놓은 약만 열심히 다 먹으면 거뜬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타일렀다. 그러나 아내는 아이들이 아니야 아니야 하고 생떼를 부리듯 **도리도리**를 치면서 내 병은 내가 안다고,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눈물방울을 떨어뜨렸다.

기수 또래의 사람들이 다 그렇듯, 그는 아내의 병명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약만 지어다 먹었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기수와 함께 장사를 하던 아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시름시름 앓더니 마침내 움져눕고 말았다. 겁이 덜컥 난 기수가 병원을 찾아갔지만 병원에서도 신중한 대답을 해 주지 않았다. 어떤 의사는 둘째아이의 산후조리가 잘못 돼서 생긴 병이라고도 하고, 어떤 의사는 신장이 몹시 나빠졌다고 하고, 어떤 의사는 종합검진을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개는 우선 환자를 입원시켜 놓고 봐야겠다고 했는데, 아내는 입원 소리만 나오면 펄쩍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약이나

한 며칠분 지어 주면 나를 거라고 지레 겁부터 내는 바람에, 그럴 형편도 못 되지만 애시당초 입원시키고 자시고 할 계획이 못 되었다.

(중략)

기수 내외는 시골에서 어울려서 거의 무일푼으로 서울에 올라와 족자사자 일을 했다. 그 일의 거짓수를 어찌 이 자리에 늘어놓겠는가? 그만한 사람들이 겪을 만한 일을 다 겪은 셈이었다. 내외가 번두리 시장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조금씩 숨을 돌리기 시작하자, 아내는 몇 년 더 열심히 벌어서 동대문시장으로 나가자고 했다. 기수가 그렇게 되면 이놈의 장사 싹 때려치우고 더 반듯한 장사를 할 일이지, 여편네가 **소갈머리**가 그렇게 좁아 가지고야 맨날 이 신세 못 면할 것 아니냐고 구박을 주면 아내는 그게 아니라고 했다. 그게 아니라 기왕에 장사를 시작했을 바엔 제일 큰 바닥에 나가서 여봐란 듯 좀 번듯하게 한번 벌여 보고 싶다고 했다. 그게 아내의 소원이었다. 한번 그런 소원을 품자 그것은 아내의 희망으로도, 사는 목적으로도 변했다. 오로지 그 날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아직은 그럴 실력이 못 되면서도 틈만 있으면 동대문시장으로 나가 마땅한 장소를 정찍어 놓고 와서는, 좋아라고, 아직은 그럴 형편이 못 되는데도 일이 다 된 것처럼 희희낙락했다.

기수가 집에 들어닥쳤을 때, 이미 아내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눈이 하얗게 까뒀잡힌 채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외마디 신음 소리만 들었다.

“여보, 여보, 나야, 나!”

기수는 아내의 상체를 흔들며 대고 외쳐 댔으나 아내는 무거운 짐일 뿐, 별반 대꾸가 없었다.

“형철아, 의사 선생님 불러 와, 빨리! 옆집 아주머니보고 말 좀 해 빨리 가서!”

아들 형철이가 뛰어나갔다. 그러나 의사를 부를 필요도 없었다. 아내는 힘없이 고개를 모로 떨구었다. 그리고 그만이었다. 희망했다.

“여똥, 살 만하니가 왜 죽어. 고생만 죽도록 하더니 왜 벌써 가. 몇 년만 고생하면 동대문시장도 갈 수 있을 텐데 왜 죽어, 왜!”

기수는 아내의 얼굴을 얼싸안고 **오장육부**가 찢어지는 울음을, 그러나 소리 없이 울었다.

밤이 되자 이백 원, 삼백 원씩을 들고 온 문상객들도, 젊은 기수댁의 죽음을 애통해했다.

“살 만하니가 갔구먼.”

“그러게 말이예요.”

“꼭 그래요. 고생고생해서 이제 한숨 좀 돌리겠다 싶으면 가거든.”

“왜 그럴까요.”

“누가 알우. 복이 그것뿐인 게지.”

“하늘도 무심하지.”

아내가 죽은 지 꼭 사흘 만에 기수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변화도 없이 나발 불고 있었다.

“동해 바다에서 막 잡아 온 고등어요, 고등어.”

그러나 이 고등어 못 먹어 보고 저승에 간 사람은 저승에 가서도 눈을 못 감을 것이라는 말은 덧붙이지 않았다. 그가 그 날 어느 손님에게 생선을 싸주는 신문 쪼가리에는, ㉠ 천만 원 대 도박을 하다가 걸렸다는 여자들의 사진이 나와 있었다.

- 최일남, 「타령」 -

43.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현재의 사건을 서술하면서 과거 사건을 삽입하고 있다.
- ② 인물의 잠재된 무의식 상태를 분석적으로 해설하고 있다.
- ③ 풍자적인 어투를 사용하여 인물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 ④ 작중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체험을 고백하고 있다.
- ⑤ 주로 대화로써 인물 간의 고조되는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44. <보기>를 고려하여 위 글에 소재목을 달아보고자 한다. 설정의 근거와 소재목이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타령’은 어떤 신세·사정·처지를 되풀이해서 늘어놓는 것을 가리킨다. 위 글은 서민의 기쁨 또는 애환이 어린 몇 가지 타령조의 이야기를 묶은 소설 「타령」 가운데 한 편이다.

소재목 설정의 근거 (이야기의 핵심)		소재목
① 생선 장사를 하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희망이 있어 행복하다.	→	‘웃음으로 가난 이겨내기’
② 비록 배우지 못하여 지식이나 식견은 없어도 품행은 바르다.	→	‘무식해도 군자(君子)는 군자’
③ 뜻밖에 나쁜 일이 생겨도 나중엔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한다.	→	‘사람 팔자 누가 아나’
④ 아등바등 노력해서 살 만해지면 안 타깝게도 액운이 닥친다.	→	‘살 만하니까 죽는구나’
⑤ 불행이 찾아와도 남들 앞에서는 표시를 낼 수 없는 게 우리네 삶이다.	→	‘꼭 참고 살아야지’

45. <보기>에서 설명한 ‘비속어’를 위 글에서 찾은 것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보 기 >

비속어(卑俗語)는 격이 낮아 속되거나 상스러운 느낌을 주는 말이다. 예컨대 ‘아가리’, ‘주둥이’를 동물(물고기)에게 사용하면 비속어가 아니지만, 사람의 ‘입’ 대신에 사용하면 비속어에 해당한다. 이밖에 ‘신세를 망치다’를 ‘조지다’로 표현하는 것 등이 있다.

소설에서는 생생한 삶의 현장을 담아내거나 인물의 성격을 형상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와 같은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 ① 고등어의 **눈깔**이 희번덕거렸다.
- ② **너스레**개나 떤다고
- ③ 생떼를 부리듯 **도리도리**를 치면서
- ④ **소갈머리**가 그렇게 좁아
- ⑤ **오장육부**가 찢어지는

46. ㉠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리는 결코 먼 데 있지 않음을 말해 준다.
- ②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을 대조적으로 부각한다.
- ③ 서민들의 삶의 희망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알려준다.
- ④ 서민 계층 가운데에는 부도덕한 사람이 없음을 암시한다.
- ⑤ 잘사는 것과 못사는 것은 사실상 차이가 없음을 강조한다.

47. ‘아내’의 입장에서 본 ‘동대문시장’의 의미와 이에 대한 독자의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내’의 입장	독자의 평가
① 살아가는 이유	안타깝게 이루지 못한 꿈
② 미래에 대한 기대	무모하게 가졌던 꿈
③ 직업에 대한 자부심	물거품처럼 헛된 꿈
④ 가족에 대한 사랑과 유대	부질없었던 꿈
⑤ 고단한 삶에 대한 자기 위안	성취한 것이나 다름없는 꿈

【48-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천하관은 세상 가운데 자기 나라의 위상이 어떠한지, 나아가 인접 국가와 비교해 자국(自國)이 지닌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다. 이는 중국의 춘추 시대에 처음 형성되어 전국 시대와 진·한대를 거치면서 일정한 내용을 갖춘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중국은 하늘 아래의 모든 세상을 '천하'로 규정하고, 자국이 그 중심에 있다고 여겼다. 이러한 천하관의 개념은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 내의 여러 나라에 전파되어 그 나라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수용되었다. 여기에 비추어 고구려는 국제 질서 속에서 자국의 위상이나 인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㉔ 규정했을까?

고구려는 자국을 천하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주변 국가를 신하의 나라로 ㉕ 간주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광개토대왕릉비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신라의 왕은 고구려를 방문하여 신하의 예(禮)를 치렀다. 또, 조공국인 신라와 동부여는 고구려에 각각 금과 옥(玉) 등의 특산물을 진상하였고, 고구려는 이에 상응하는 물자를 답례품으로 주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구려가 조공국에 군사적 지원을 하기도 했는데, 이는 군사적으로 그 나라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대신, 그 나라에 일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㉖ 고구려의 천하관은 중국의 그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 고구려가 생각하는 천하는 중국이 생각하는 천하와 달라 고구려 왕의 지배력이 실질적으로 미치고 있거나 미쳐야 한다고 판단하는 범위의 지역이었다. 고구려는 천하를 몇 개의 지역권으로 ㉗ 형성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몇 개로 나누어진 지역권 중 한 곳의 중심이 고구려라는 천하관을 갖고 있었다.

고구려의 대외 정책도 이런 천하관에 기초하고 있었다. 5~6세기 동아시아 국제 정세는 마치 맹수가 각자의 세력권을 인정하며 안정을 유지하듯이 중국의 남·북조, 북아시아의 유연, 동북아시아의 고구려, 티베트 고원의 토욕혼 등 주요 국가들이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북조가 강대국이긴 하였으나 어느 나라도 국제 정세를 일방적으로 주도하지는 못했다. 당시 고구려는 강대하고 팽창적인 북조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구려는 북조와 외교 관계를 맺어 평화를 유지하는 한편, 주변 국가들과 연결하여 북조를 견제하는 외교술을 ㉘ 구사하였다.

고구려는 이렇게 중국의 남·북조와 몽골 지역의 국가와는 병존책을 추구하고, 자신의 무대라고 여겼던 동북아시아에서는 패권을 유지하려 하였다. 광개토대왕릉비의 '호태왕'이란 표현은 중국에서 통용되던 '황제'와 그 의미가 유사한 것으로 고구려의 왕이 백제나 신라 등 인접국의 왕보다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는 의도적인 표현이었다. 고구려는 이 같은 천하관에 의거하여 동북아 지역 인접 국가들을 조공국으로 규정하여 복잡한 국제 질서를 ㉙ 주도하고자 했던 것이다.

4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물음의 방식으로 화제를 제시하였다.
- ②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 ③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여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 ④ 대조의 방식으로 대상의 독자적 특징을 드러내었다.
- ⑤ 구체적인 사료(史料)를 활용하여 논지를 강화하였다.

49. 위 글과 <보기>를 연관 지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광개토대왕릉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 옛날 시조 추모성왕이 나라를 세웠다. 시조는 천제(天帝)의 아들이요 ...

→ ... 18세에 즉위하여 ...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에 ...

→ 백제와 신라는 예부터 속민(屬民)으로 고구려에 조공해 왔다.

→ 동부여가 조공을 바치지 않자 ... 동부여의 수도를 공격하여 ...

- ① 고구려의 건국 이념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 ② 고구려가 배타적이고 호전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했음을 판단할 수 있다.
- ③ 고구려가 세상의 모든 나라를 속국(屬國)으로 간주했음을 알 수 있다.
- ④ 고구려가 광개토대왕 이후 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고구려는 천제의 후예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인접 국가들에 대해 주도권을 유지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50. ㉖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1점]

ㄱ. 자생적으로 형성된 정치 이념이다.
 ㄴ. 자국을 지역 내에서 중심 국가로 인식하였다.
 ㄷ. 중국의 천하관과 근본적으로 일치한다.
 ㄹ. 대외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 ④ ㄴ, ㄷ ⑤ ㄴ, ㄹ

51. ㉔ ~ ㉙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㉔ 규정 :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함.
- ② ㉕ 간주 : 상대,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봄.
- ③ ㉖ 형성 : 어떤 형상을 이룸.
- ④ ㉗ 구사 : 자유자재로 다루어 씬.
- ⑤ ㉘ 주도 : 어떤 일을 책임을 지고 맡아 관리함.

【52 -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화(造化)가 무궁하여 만물이 생겼구나. 나는 농 기는 농, 숨은 농 뛰는 농, 큰 농 작은 농, 모두 (㉠)이니 세상은 같은 것이 하나도 없네.

날짐승만 해도 그 족속이 수백 가지. 봉황은 높은 산에 올라 덕을 보고 날아와 모이고, 곤(鯨)이란 고기와 봉(鵬)이란 새*는 회오리바람처럼 힘차게 일어나 순식간에 변하여 홀연히 모여든다네. 매와 솔개는 못 새를 쫓으니 그 화살같이 빠름이 사랑스럽고, 수리와 물수리는 하늘 높이 치솟으니 그 능름한 모습이 사랑스럽구나.

제비는 봉과 가을이 바람을 알고, 기러기는 여름과 겨울을 따라 남과 북으로 왕래하고, 앵무새는 아름다운 깃털에 말까지 하니 구관조와 벗할 만하고, 까막까치는 때를 알아 기쁨을 전하니 부엉이와 솔개와 비교할 수 없구나.

펼 펼 나는 저 박쥐야 너는 대체 무엇이나? 쥐의 몸에 새의 날개를 달았으니 그 형상이 참으로 괴이하구나.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밤에만 나타나니 그 종적이 음침하여 참으로 실망스럽구나. 또 너는 어쩐 일로 아침 햇빛을 보고 숨으며, 밤의 어둠을 쫓아 우쭐 우쭐 뽐내느냐?

네 고기는 제사상에도 못 오르지 무슨 맛이 있겠으며, 깃털이 없으니 장식에 쓸 수도 없고, 발톱과 이빨은 있어도 아무 쓸모가 없구나. 그런데도 천지가 포용해 너 같은 미물을 용서하니 이상하구나.

[A] 너는 자질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자태가 아름다운 것도 아니니, 무슨 화를 당하며 무슨 해를 입겠는가? 공중을 높이 나는 기러기와 고니도 그물에 걸리는 수가 있고, 멀리 나는 사나운 송골매도 노끈에 매이는 때가 있는데, 너만은 조용히 마음 내키는 대로 사니 정말로 우습구나.

내가 전에 쓸쓸히 홀로 지내며 밤마다 잠 못 이룰 때에, 귀뚜라미 슬피 울고 개구리 소란스럽게 울어대도 오히려 마음의 화포를 풀 수 있어 싫지 않고 귀에 거슬리지도 않았는데, 문득 네가 우는 소리를 한번 들으면 성난 머리칼이 곤두서는구나. 네가 못 짐승들과 어울려 놀지 않고 숨어 살며 커다란 집에 몰래 의지해서 지내는 것을 보면, 그 하는 짓이 괴이할 뿐만 아니라 속내조차 알 길이 없으니 사람으로 치자면 소인배임에 틀림없겠구나.

그러나 천지에 온갖 동물들이 (㉡)이어서, 어떤 농은 꿈틀꿈틀 기어 다니고, 어떤 농은 어지럽게 날아다닌다. 이 [風]란 농은 못 솔기에 숨어 살고, 초료(鸚鵡)새**란 농은 눈썹에 깃들이고, 파리란 농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또 달팽이란 농은 두 뿔이 엄청 긴데다 그 끝에 눈까지 달렸구나. 장자가 일찍이 그 두 뿔에 만(蠻)과 촉(觸)이란 나라가 있어 서로 싸워 시체가 백만이나 되었다고 해서 인간사를 꼬집었으니, 이는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보면 인생이란 것처럼 보잘것없는 것임을 말하고자 함이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이 천지가 만들어 낸 자연으로, 크고 작음과 형(形)과 질(質)을 따져 차별을 둘 수가 없는 것. 이제 내 뜻을 휘갈겨 글을 짓자니, 박쥐야, 내가 어찌 너를 책망할 수 있으랴?

- 서거정, 「박쥐야 박쥐야」 -

* 곤(鯨)이란 고기와 봉(鵬)이란 새 : <장자>에 나오는 상상의 동물
 ** 초료(鸚鵡)새 : 뱀새, 또는 굴뚝새

52.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을 인간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 ② 대상의 행동을 인과적으로 서술하였다.
 - ③ 대상을 향하여 말하는 어조를 취하였다.
 - ④ 대상의 생태와 외양을 거론하면서 평하였다.
 - ⑤ 대상을 포함한 여러 동물이 사는 모습을 나열하였다.
53. 위 글의 전개 과정을 <보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ㄱ)~(ㄷ)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세상의 조화가 무궁하고 만물이 사랑스러움. (ㄱ)
□
박쥐의 형상이 괴이함, 밤에만 나타나, 사람에게 쓸모가 없음, 우는 소리가 불쾌함. (ㄴ)
□
온갖 동물은 다 제각각이고, 박쥐도 그러함. (ㄷ)
□
박쥐만 차별할 수 없고, 책망할 수 없음. (ㄷ)

- ① (ㄱ) : 주로 만물의 다양성에 대해 말함
 - ② (ㄴ) : 박쥐에 대한 주관적 인상을 정리함
 - ③ (ㄷ) : 박쥐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봄
 - ④ (ㄷ) : 미처 몰랐던 박쥐의 장점을 발견함
 - ⑤ (ㄱ) → (ㄷ) : 박쥐의 존재를 포용하고 인정하는 과정임
54. [A]를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 ① 세상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 ② 세상일은 항부로 예측할 수 없다.
 - ③ 정말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일이다.
 - ④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많다.
 - ⑤ 자기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일이다.

55. [눈]의 문맥적 의미와 거리가 먼 것은? [1점]
- | | |
|----------|----------|
| ① 의향(意向) | ② 시각(視覺) |
| ③ 식견(識見) | ④ 안목(眼目) |
| ⑤ 관점(觀點) | |

56. ㉠,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은? [1점]
- | | |
|--------------|--------------|
| ① 각양각색(各樣各色) | ② 유사상종(類類相從) |
| ③ 천차만별(千差萬別) | ④ 천태만상(千態萬象) |
| ⑤ 형형색색(形形色色) | |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빛은 물결이 퍼지듯이 파동에 의해 전파된다. 이 파동에서 물결의 한 꼭짓점부터 다음 꼭짓점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한다. 빛은 파장에 따라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등의 광선들로 나뉘는데, 인간은 가시광선만을 시각으로 느낄 수 있다.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이나, 짧은 자외선은 눈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이 중에서 가시광선은 파장이 가장 긴 빨간빛부터 가장 짧은 보라빛까지 수많은 빛들로 구별되는데, 이 빛들과 관련된 대표적인 현상으로 ‘분산’과 ‘산란’을 ㉠ 들 수 있다.

파장은 빛의 굴절에 영향을 미치는데,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되는 정도가 커진다. 예를 들면 보라빛은 빨간빛보다 파장이 짧아 굴절되는 정도가 더 크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색을 지닌 태양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빛은 파장에 따라 갈라져 흩어지면서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 등의 순서로 보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빛의 분산’이라고 한다. 하늘에서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무지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빛이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을 만나 굴절과 반사의 과정을 거쳐 물방울 밖으로 나가면서 다채로운 빛깔을 드러낸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무지개이다.

‘빛의 분산’ 외에도 파장과 관련 있는 현상으로 ‘빛의 산란’을 들 수 있다. 빛은 대기층을 통과하면서 대기 중에 있는 질소, 산소, 먼지와 같은 작은 입자들과 부딪치게 되는데, 파장이 짧은 빛일수록 입자들과 많이 부딪친다. 빛이 대기 중의 입자들과 부딪치면 그 입자들에게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이 에너지를 받은 입자들은 들뜨게 되고 들뜬 입자들은 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빛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한다. 이 현상이 ‘빛의 산란’이다. 해 뜰 녘이나 해 질 녘에 하늘이 붉은빛을 띠는 것이나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낮에 하늘이 푸른빛을 띠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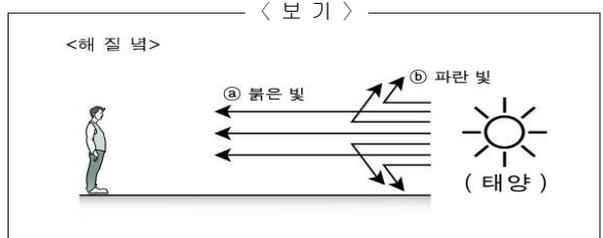
해 뜰 녘이나 해 질 녘에는 태양 빛이 지표면을 따라 수평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태양빛이 대기층을 지나는 경로가 낮보다 길어진다. 이 때문에 파장이 짧아 대기 속에서 계속 산란을 하며 전파되는 파란빛은 먼 거리를 이동하지 못하고 대부분 대기 중에 흡수되어 버린다. 반면에 파장이 길어 산란이 적게 일어나는 붉은빛은 대기 속에서 계속 전파되어 사람들에게 인식된다. 한편 낮에는 태양이 지표면과 수평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빛이 대기층을 이동하는 경로가 짧아진다. 이 때문에 산란되는 양이 많은 파란빛은 일부만 대기 중에 흡수되고 대부분은 사람들의 눈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 파장이 가장 짧은 것은 정작 보라빛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늘은 파란빛으로 보이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 눈이 보라빛보다 순수한 원색인 파란빛을 더 잘 인식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빛은 ‘분산’, ‘산란’ 등의 현상으로 무지개, 푸른 하늘, 노을 등을 볼 수 있게 한다. 빛이 없다면 인간은 이러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빛은 인간이 외부 세계와 시각적으로 소통하게 해 주는 매개체이다.

57. 위 글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① 대기층의 종류
- ② 빛이 산란하는 이유
- ③ 무지개가 생기는 이유
- ④ 파장에 따른 빛의 종류
- ⑤ 빛의 굴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58. 위 글을 토대로 <보기>의 그림에 대해 설명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대기 속에서 이동해야 하는 거리는 낮보다 길다.
- ② ㉠가 그림과 같이 전파되는 것은 파장이 길기 때문이다.
- ③ ㉡는 다양한 빛깔로 갈라지며 흩어지고 있다.
- ④ ㉡는 이동 중에 대기층으로 대부분 흡수되고 있다.
- ⑤ ㉠와 ㉡의 특성은 해 뜰 녘에도 마찬가지이다.

59. 위 글에 제시된 ‘보라빛’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시광선에 속하지 않는다.
- ② 붉은빛보다 파장의 길이가 짧다.
- ③ 대기 중에서 파란빛보다 시각적으로 더 잘 인식된다.
- ④ 대기를 이동하며 산란 현상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
- ⑤ 태양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켰을 때 한가운데 나타난다.

60.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선생님은 보기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셨다.
- ② 금년에도 설악산에는 단풍이 아주 아름답게 들었다.
- ③ 그 편지에는 친구의 소식이 자세하게 들어 있었다.
- ④ 밥만 잡수시지 말고 나물 반찬도 들어 보세요.
- ⑤ 그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책을 보았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